

군산사랑상품권 덕분에 매출 쑥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 효과

군산시가 발행·운영 중인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발행금액이 총 2조9,838억원에 이르며,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 역의 유출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비가맹점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이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상품권 누적 환전율도 매년 상승하여 2024년 기준 98.5%에 달해, 판매된 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단순한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주요 사용처를 보면 음식점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류(11%), 교육(10%), 편의점·슈퍼마켓(9%), 의류·잡화(6%), 주유소(4%), 미용(3%), 카페·베이커리(3%), 자동차·자전거(3%), 가전(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생활 필수 영역에서 주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4년 상품권 QR결제로 소상공인이 절감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최소 4억2,400만원에서 최대 21억2,200만원으로 추정되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군산시는 지난해 대비 925억원이 증액된 총 4,12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5월 말 기준 상품권 판매액은 약 1,707억원(연간 발행 목표의 41%)이 판매되었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및 가맹점 확대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공헌 기린다

익산시, 통합전수교육관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익산시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렸다.

시는 25일 통합전수교육관 대공연장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국회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육군 부시관 학교장, 9585부대 3대대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모범 국가유공자 및 유족 9명에게 표창을 수여

했다.

이어 조만영 6·25참전유공자회 익산시지회장은 회고사에서 "스무 살 청년으로 전방터에 나서며 가족과 고향을 뒤로한 채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만 품고 싸웠다"며 "함께 싸운 전우들과의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를 후손들이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 자리가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명장 공개모집... 최고 숙련기술자 발굴

기계설계·금속재료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서 3명 이내 선정

군산시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2025년 군산시 명장'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기계설계, 금속재료, 공예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며, 직종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명장 선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지역 숙련 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신청은 읍면동장, 시 기업체의 장, 각 업종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직종별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명장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기

술 숙련도, 전문성, 숙련 기술 발전 및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선발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군산시장 명의의 명장 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군산시청 홈페이지 명장 코너에 이름이 등재된다.

시는 이 밖에도 '명장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직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과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명장의 숙련된 기술과 비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www.gun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63-454-4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군산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 개최

군산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25일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군인,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기념사·회고사·격려사·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 순서에서는 6·25 전쟁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대신하여 유가족 3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는 감동적인 순간도 연출됐다. 이어 모범 국가유공자 11명도 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훈장과 표창이 하나하나 전달될 때마다 우렁찬 박수로 국가를 위해 가장 찬란한 청춘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로운 세상, 희망의 군산을 만들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 정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한다.

익산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위단계 인증은 기존 인증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주어진다. 유니세프가 제시한 6대 아동친화 영역과 5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 운영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된다.

익산시는 2021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 받은 후, 아동 권리 증진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천에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정책추진단 운영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서포터즈단 및 아동권리옹호부즈퍼슨 등 민간 협력 기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아동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등 참여 기구를 마련해 아동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 건

강체험관, 생태놀이터 등 아동 중심 공간을 확충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 정책의 구조적 내실화로 이어졌으며, 단순한 재인증을 넘어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이번 상위단계 인증은 2029년 6월 19일까지로, 익산시는 아동정책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길 열려

소길영 익산시의원 발의,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익산시가 수직농장이라는 새로운 농업 인프라를 품을 제도적 문을 열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담회와 민생토론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수직농장의 산업단

지 입주 허용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적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관련 상 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야외수영장 개장 내달 4일~8월 24일 운영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시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산시가 군산야외수영장과 어린이공연장 내 물놀이장 개장을 알렸다.

먼저 시민들의 여름철 대표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한 군산시 소동동 소재 야외수영장은 7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문을 연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장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의 수질 및 환경정비를 위한 브레이크 타임으로 수영을 할 수 없다.

야외수영장은 성인풀·어린이풀·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 시설과 바다분수, 매점, 샤워장,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기타 자세한 이용 시간 및 입장료 등은 군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장마 대비 신청사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는 25일 신청사 공사현장의 안전진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목분야 안전성, 철수위험 지역의 관리 상태, 배수로 및 침사지 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시는 여름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13일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13일에는 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철저를 기했다.

이어 점검 결과에 따라 시는 외곽 경계부 및 내부 경사면의 배수로 설치, 사면 전막 고정, 버팀대 공극부 뒷채움, 안전난간대 설치 등 주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시는 비상 당직 체계 유지와 수방자재 확보를 비롯해 인접 지반의 변형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